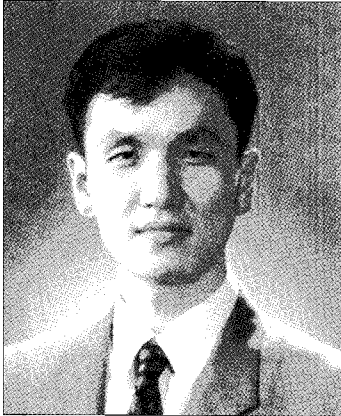


“성공한 벤처결실 산·학·연이 도와야”



이 윤 철 교수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한국경제는 1997년 이후 다양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70년대 이전까지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80년대 자본집약적인 조선, 철강, 자동차 산업 등이 경제의 주역으로 부상했지만 90년대 후반 이후 과잉투자에 대한 반작용으로 폭넓은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벤처기업은 이러한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된 한국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탄력성 있는 조직구조와 속도감 있는 연구개발을 무기로 탄생하였다.

바이오산업에 있어서도 기존의 제약회사나 식품회사와는 달리 혁신적으로 과감한 시도를 하는 벤처기업들이 1990년대 후반 들어 급속히 확산되었다. 특히 게놈(GENOME) 프로젝트를 통한 인간 유전자 지도 분석과 다양한 신약 개발, 인구의 노령화 현상 등은 바이오산업 자체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부풀려 놓았다.

그러나 국내 바이오 벤처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쟁력으로 아직까지 연구개발과 이의 사업화에 있어 투드러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영세한 기업규모와 기술자 중심의 경영으로 경직된 전략적 사고를 지닌 바이오 벤처들은 기술적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창업 후 사업영역 선택과 생존을 위한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산업은 정보통신산업 다음으로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희망산업이다. 기존의 기간산업 중심의 경제운영에서 탈피하여 첨단기술과 신개념의 제품개발을 위해서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 대기업들은 이런 역할을 하기에는 기업문화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첨단 연구개발은 「실패할 수 있는 자유(free to fail)」가 보장되어야만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 벤처는 바로 유연한 조직과 과감한 혁신을 무기로 첨단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첨병이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부진만으로 바이오 벤처의 역할을 평가절하해서는 곤란하다. 꺼지지 않는 경제성장 엔진을 위해서는 접화플러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첨단 영역의 벤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바이오 벤처의 역할에 대한 지나친 기대도 문제이다. 벤처는 모험일 뿐이다. 실험적인 모험이 성공한 후 계속해서 벤처로 남아 있어서는 곤란하다. 이를 사업화 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벤처만의 몫이 아니라 대기업, 정부, 대학을 포함한 연구기관 전체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활발한 전략적 제휴와 합병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성장엔진에 있어 접화 플러그가 접화되면 다음으로는 엔진 자체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협력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약 력

서울대 경영학 학사/석사	(사) 산업정책연구원/컨설팅본부장(현)
서울대 경영전략 전공으로 박사학위 취득	한국전략경영학회/이사(현)
국제기업전략연구소/책임연구원	한국국제경영학회/이사(현)
日本 一橋大學 산업경영연구소/객원연구원	